

# 광주·전남 저축은행 '안전하다'

### BIS 비율 평균 12.01% ...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 옛 창업저축은행 등 2곳 매각 퇴출 가능성 희박

서울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영업정지 등 퇴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창업저축은행이 대유디엠씨 등 대유관계사가 인수해 스마트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동양저축은행도 신동해인태내소남로 매각돼 새 주인을 맞는 등 지역 저축은행의 위생요소는 제거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7곳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옛 동원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도 분당으로 본사를 옮기고 광주와 여수에 영업점만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지역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은 평균 12.01%로 전국 105개 저축은행의 평균(9.25%)보다 높아 BIS 비율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BIS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센트럴저축은행으로 33.2%를 기록했으며 동양저축은행(10.7%), 스마트저축은행(10.57%), 대한저축은행(9.22%), 보해저축은행(8.05%), 무등저축은행(7.26%), 골든브릿지저축은행(5.3%) 순이었다. 무등저축은행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BIS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악성채무를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이 5곳인데다 지역 저축은행의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14%로 전국 평균(9.72%)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중소형 규모의 지역 저축은행의 PF대출(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지난해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해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는 적는데 PF대출금액은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실제 지역 저축은행은 다른 지역보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한 저축은행	9.22	6.86
동양 저축은행	10.7	29.51
무등 저축은행	7.26	16.48
보해 저축은행	8.05	7.35
골든브릿지저축은행	5.3	17.49
센트럴 저축은행	33.02	13.9
스마트 저축은행	10.57	14.4
<b>지역평균</b>	<b>12.01</b>	<b>15.14</b>
<b>전국평균</b>	<b>9.25</b>	<b>9.72</b>

※ 지난해 6월말 경영공시 기준 (자료:저축은행 중앙회)

다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 중 금융당국이 말하는 우량 저축은행은 대한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이 해당됐다.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두 지표는 자산 건전성을 대표하

는 지표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우량 저축은행을 판단하는 기본 가이드 라인은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이다.

BIS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부실채권 중 리스크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로 낮을수록 부실이 적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당장 퇴출될 가능성은 없다"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저축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자기자본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9일 실습생들이 무안공항 입국검사장에서 마약견이 수하물을 탐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 LG '통큰 채용'

### 올 추후 등 1만7000명

LG는 올해 대졸 신입 6000명, 경력 3000명, 기능직 8000명 등 1만70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000명(13%)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LG는 전했다.

LG 관계자는 "올해 투자 21조원, 매출 156조원 등 역대 최대의 도전적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대학생에 '세관 현장실습' 기회

### 광주세관, FTA 수출입 업무 등 2주 동안 실시

광주세관(세관장 진인근)은 지역 무역화도들이 취업 현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7~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세관 현장실습 기회'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세관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세관 현장 실습'은 지역 수출업체 FTA 활용 지원전략인 '3-S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차로 조선대학교 경상대 재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S 프로젝트'는 원산지인증수출장 조기기장(Speed), 전문가 양성(Specialist), 사후관리(Service)를 뜻하는 '전문가 양성 추진과제'를 이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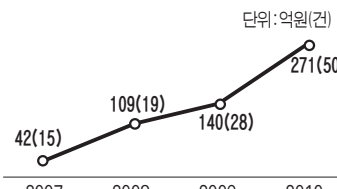
광주세관은 이번 현장실습에서 FTA 수출입 통관,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강사로 내세워 수준 높은 학습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실습생이 수출입 기업에서 FTA 원산지관리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향후 현장 실습 뿐만 아니라 대학에 FTA 특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학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 대학의 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고

### 지난해 50건 가입 ... 보증금액 271억원 두배 올라

### ■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 현황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50건, 보증금액 27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28건, 140억5900만원)에 비해 가입건수는 78.6%, 보증금액은 92.2%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주택가격은 1억300만원, 연금 매월 40만원, 일시금 65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입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

기 때문에 증가세가 20%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부모 세대가 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보유 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퍼진 결과로 보인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사망 이후 그동안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돌려주고, 집값보다 많이 받았으면 초과분을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박경순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주택연금은 매년 집값이 3.5% 상승을 가정해 상품이 설계돼 있어 집값 상승폭이 이보다 낮은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며 "올해도 주택연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구마바이 대우車, '시보레'로 재시동

### 사명도 GM대우 → '한국지엠'으로 바뀌

GM대우는 20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 차량 브랜드를 '시보레(Chevrolet)'로 바꾼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명도 '한국지엠 주식회사(한국지엠)'로 교체키로 했다.

GM대우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내시장 입지 강화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시보레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하고, 1분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사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신차와 기존 차

량의 연식 변경 모델 등 모든 신제품이 시보레 브랜드로 출시되며, 대우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GM대우는 내달까 다목적차량(MVP)인 '올란도'를 시작으로 올 1분기에 스포츠형 쿠페인 '카마로', 소형차 쉐보레 후속인 '아베오' 및 '아베오 해치백', 2분기에 '라세티 프리미어 해치백' 모델을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톨 후속 '캠퍼바', 중형 세단인 토스카 후속 모델, 스포츠카 '콜벳'을 잇따라 시보레 브랜드로 출시한다. /연합뉴스

## "밀린 하도급 대금

### 설前 전액 지급을"

### 광주 전문건설협회 원청에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0일 설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 발주기관 36곳과 종합건설업체 210개사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회는 특히 올해 설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 높은 물가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자금 압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현장에서 노미 체불 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K5, BMW·도요타도 제쳤다

### 기자가 뽑은 '올해의 車' 선정

기아자동차의 중형 세단 K5가 국내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뽑은 '2011 올해의 차(Car Of The Year)'에 선정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 예진수)는 20일 서초구 반포동 한국시민공원에 선상클럽인 마리나제에서 제1회 '올해의 차' 시상식을 하고 기아차측에 트로피를 전달했다. 협회 회원사인 30개 언론사 기자들은 투표표

통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국내 시장에 출시된 국산차와 수입차 50개 차종 중 K5와 함께 현대차 신형 아반떼, BMW 5시리즈를 '파이널 3'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K5를 최종 낙점했다.

올해의 차 3개 부문별 평가에서는 퍼포먼스상에 포르쉐911, 디자인상에 K5, 그린카상에 도요타 프리우스를 각각 선정했다. K5는 '올해의 차' 대상과 디자인상 수상으로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106.66 (-9.03)
코스닥지수	533.36 (+0.39)
금리 (국고채 3년)	3.81% (+0.02)
원·달러 환율	1,121.20원 (+10.90)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친환경 다원

**작설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감능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2009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